

지역 소식통

부안군,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위생점검

부안군은 어린이기호식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판매환경 조성을 위해 학원가와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2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4일간 위생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여름방학과 가을개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학원가, 학교매점, 분식점 등 조리·판매업소 24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조리시설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냉동·냉장제품 등의 보관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및 위생모·위생복 착용여부, 저염양·정서저해 식품판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손씻기,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생활방역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고 음식접 위생등급제 지정을 독려하는 등 식중독 예방지도와 어린이식생활에 대한 영영주 교육,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안전보호구역 캠페인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 식도마을 박희영씨 근농인재육성장학금 기탁

부안군 위도면 식도마을 박희영씨가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단을 방문해 지역인재 육성에 동참하고자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박희영씨는 지난 수년에 걸쳐 식도어촌계장으로 영세어업인의 권익보호와 소득증대에 앞장서 왔으며 직접 포획한 수산물 등을 가공해 위도의 수산물 특산물 마른멸치와 멸치액젓 등 각종 젓갈을 생산하는 산지가 공시시설을 갖춰 지역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물론 젓갈의 6차 산업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박희영씨는 "삶의 꿈과 이상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장학금 단에 2018년부터 꾸준히 장학금을 후원해 왔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기탁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학교급식 꾸러미’ 출발~

정읍시·교육지원청, 2차 사업... 지역내 1만 1720명 혜택 3만2000원 상당 백미·참쌀·감자 등 6가지 농산물로 구성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 2차 사업을 전개한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해 농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을 돕고 학생 가정의 식비 부담 경감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2차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에 이어 두 번째 제공되는 이번 꾸러미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사용하지 못한 무상급식 예산을 활용하여 마련됐다.

지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



정읍시와 정읍교육지원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공급 지원’ 2차 사업을 전개한다.

학교 재학생 106개교 1만 1,864명 중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지역 내 학생 1만 1,720명의 집으로 직접 배송된다.

꾸러미는 백미(백)를 포함해 3만2천원 상당의 가격으로 친환경 백미와 참쌀, 감자, 양파, 고춧가루, 귀리 등 6가지로 농산물로 구성했다.

특히, 여름철 고온에도 견딜 수 있는 품목 위주로 정읍시 학교 급식비 지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2차 학교급식 꾸러미도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산물로 정성껏 꾸러미를 구성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생산 농가와 학생 가정, 친환경학교급식센터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착한 소비 운동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부안을 남성의용소방대(대장 박천섭)는 변산마실길 제1코스(새만금방조제~송포항)에서 깨끗한 마실길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부안읍 남성의용소방대, 변산마실길 환경정화활동

부안군 부안을 남성의용소방대(대장 박천섭)는 변산마실길 제1코스(새만금방조제~송포항)에서 깨끗한 마실길 조성을 위한 환경정화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환경정화활동은 상사화가 만개해 절경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방조제 인근 상사화 단지에서 진행됐으며 휴가철을 맞아 관광객 및 탐방객 등이 북새뿔을 이루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집중 수거했다.

부안읍 남성의용소방대는 깨끗하고 청결한 마실길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환경정화활동 시행을 다짐했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마실길 조성에 앞장서 준 부안을 남성의용소방대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변산마실길 제1코스는 상사화 만개로 탐방객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꽃과 사람이 어우러져 장관을 이루고 있다. 생활 속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찾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군 ‘농산물산지유통시설 공모’ 예비대상자 선정

저온저장고 등 노후시설 보완,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기대

전북 고창군이 2021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 공모사업 예비대상자로 선정돼 농산물 상품화시설 보완을 통한 유통경쟁력 강화로 소비시장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농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은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와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저장·선별·포장·출하 등 일괄 처리 기능을 갖춘 유통 시설장비를 구축한다.

이번에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고창군은 총 사업비 50억원으로 저온저장고 등 노후시설 개보수와 GAP시설 보완, 저온저장고 증축 등을 추진한다.

최근 과채류, 서류 중심으로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산물의 안정적인 상품화와 유통을 위해 현대화된 선별 시설로 대폭 교체할 계획이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부터 사업을 준비해 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의 서면심사와 발표평가를 거쳐 내년 농산물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의 예비대상자로 선정됐다.

고창군 이영운 농어촌식품과장은 "2006년에 준공한 농산물유통센터의 시설장비가 노후화로 농산물 상품화의 한계와 비효율적인 유지비용이 발생했다"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국비를 확보해 시설 보완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유통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소득 증대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전북과학대, ‘도자기 문패 달아주기’ 농촌 재능나눔 ‘호응’

입암 양지 등 4개 농촌 마을 총 200여 가구에 제작 전달

정읍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입암면 양지마을과 북면 원당마을 등 4개 농촌 마을에서 도자기 문패 전달 행사를 가졌다.

이날 전북과학대학교 디자인과 박현수 교수와 토담 동아리 학생 7명은 지난 6월부터 학교에서 직접 제작한 도자기 문패를 농촌 마을 200여 가구에 전달했다.

학교 관계자는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도자기 문패를 제작하고 전달하는 시간을 마련했다"며 "회복하

고 행복한 가정 조성은 물론 우편물의 정확한 배달 등 부차적인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와 전북과학대학교는 지난 2013년부터 8년째 1%의 재능나눔으로 101% 행복 만들기를 목표로 농촌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사업이 지방 이양되면서 지자체 예산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성행함에 따라 문패 제작과 마을환경정화 등 비대면 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

시와 학교는 봉사자들의 예방수칙 준수는 물론 마을회관에 방역을 완료

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철저를 기하며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의 적극적인 재능나눔 활동이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앞으로도 재능나눔 사업을 통해 농촌 마을이 풍요롭고 건강하게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의용소방대원은 지난 10일 고창군청에서 내 고창 하천 가꾸기 협약에 따라 고창천(월곡교~고인들공원)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고창의용소방대 ‘아름다운 고창천 만들기’ 구슬땀

고창의용소방대원은 지난 10일 고창군청에서 내 고창 하천 가꾸기 협약에 따라 고창천(월곡교~고인들공원)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하천 정화활동은 고창읍 남·여 의용소방대원 60여명이 참석하여 아름다운 하천 만들기에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군은 내 고창 하천 가꾸기 운동에 필요한 청소 용품 생수 등을 공급하고 고창읍의용소방대는 하천 구간별로 교란쓰레기 제거 쓰레기 무단투기 예

방과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활동 전후 고창군과 간담회를 갖고 추진상황 등을 논의해 점진적으로 하천 가꾸기 운동을 펼쳐 늘 쾌적하고 깨끗한 하천 만들기에 일조할 예정이다.

조은희 여대장은 "물은 생명의 근원으로 깨끗한 하천을 만들어 군민들의 쾌적한 건강을 위해 열린 공간으로 거듭나고 고창을 찾는 모든 사람이 편히 쉴 수 있는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